

특별특리소

김제시, 면세유 가격표시판 점검

김제시는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면세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유가격표시판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적정하게 교체하였는지 여부와 표시 방법의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개정된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종전의 면세 전 가격과 판매가격만 표시하던 것에 면세액 항목이 추가되어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을 판매업자와 소비자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4-H본부 정기총회 개최

김제시4-H본부(회장 곽정근)는 22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식)에서 4-H본부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결산 및 사업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추진 성과와 결산 보고 후 학교 4-H과제교육 및 전북 4-H경진대회, 우수학생 표창 등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금년도 사업계획 중 5월에 실시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생 4-H회원들에게 삶의 터전인 우리 고장에 대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역사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 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4-H회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교4-H 우수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4-H본부 현장교육에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김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나서

정읍시가 산하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이날 1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벌과 행정벌에 더해 현장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의 징계처분(경책~강등) 기간별로 1월~4월까지 현장업무 부서에 근무지정, 정읍천 정화활동,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청소차 동행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다문화가족 예비 학부모교육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청구)는 최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학 준비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초·중학교 예비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학 준비, 학교시설 이용, 안전한 통학 방법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입학에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과 아이의 교육관계, 학습·인성지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만큼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학 전 학부모교육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부래민복(扶來滿福)' 실현을 위한 우리동네 공감토크쇼를 운영하며 실천했다

부안군 공감토크쇼 '호평'

김종규 군수, 읍·면 순회방문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소통행정 펼쳐

김종규 부안군수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부래민복(扶來滿福)' 실현 등을 위한 우리동네 공감토크쇼를 진행한 가운데 행정과 주민간의 격 없는 소통의 장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읍면 연초방문을 대신해 진행된 이번 공감정책토크쇼는 지난달 14일 이산·백산면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위도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부안군은 이번 공감정책토크쇼를 통해 기존의 관행적인 연초방문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마을지도자, 소외계층 등과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고 양방향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의 관행적 형식에서 탈피해 행방메시지 공유(군·면정 홍보 동영상 등) 및 주민대표 성공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공감정책토크쇼와 소외계층·귀농귀촌인·경로당 민생탐방 등 주민 중심으로 추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김종규 군수는 첫 방문지였던 주산면을 찾아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이 있다"며 "바로 칭찬과 지지"이라고 강조하는 등 공식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 박수를 받았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묻는 질문에

"농업은 사안산업이 아니라 미래 최고 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 도시 부안을 실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안면 우리동네 공감정책토크쇼에서 김종규 군수는 "소통·공간·동행 행정, 인구늘리기, 부안 정병 600주년, 밤바실 야간구경 등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많다"며 "행정 3원칙 등을 토대로 공식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 등을 통해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민창안학교 개최

46개 공동체 200여명 참여

정읍시가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읍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6 정읍시민창안학교(이하 시민창안학교)'를 개최한다.

시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시민창안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시민창안학교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가 주관한다.

이달 22일 인교식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이어지는 시민창안학교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 15팀과 창업공동체 25팀, 도시재생공동체 6팀 등 총46개 공동체 200여명이 참여한다.

시민창안학교에서는 소양교육과 사업 아이디어 찾기, 현장견학,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등 총 6회 차 50여 시간에 걸쳐 탄탄한 공동체 조직과 실현 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시 제정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교식은 김 시장의 인사말과 관상동강릉시 마을만들기센터장 특강, 시민창안학교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읍시민창안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창안학교가 공동체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해당 공동체는 물론 우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창안학교는 마을과 창업분야 외에 특별히 정읍시 도시재생의 전략적 활성화를 목표로 창안대회에 도시재생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경찰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S-컨설팅 우수관 대표를 초청 강의를 했다.

정읍경찰서, 감성커뮤니케이션 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9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S-컨설팅 대표 우수관 강사를 초청해 「행복의 조건, 호감과 공감」이 함께하는 고객만족 감성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감, 소통, 경청 등 행복의 조건을 위한 고객만족 감성 커뮤니케이션 강의 진행으로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호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표정이 가장 단시간에 영향을 준다.'며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한 얼굴 예뻐지는 법 동영상 시청부터 옆에 앉은 동료들과 웃는 얼굴 만들기를 통한 표정변화 관찰 등 직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는 내 몸과 마음이 상대방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하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어야

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직원들은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주어 정말 즐거운 강의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을 응대할 때 공감하고, 감성 소통할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찰아카데미는 고객만족 감성커뮤니케이션 강의와 더불어 정읍성폭력상담소장(소장 박종숙)의 '사이버성폭력'을 주제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김주원 정읍경찰서장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한다. 치안민족을 위해 정읍 시민의 공감을 위해 세심함의 미학을 가지고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교월동,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성황'

고놀이·입석줄감기·당산제 등 관광객 등 500여명 참여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22일 김제시 교월동 입석전승관 광장에서 마을전통 민속놀이로 전승 보존되고 있는 입석줄다리기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식 김제시장,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놀이와 줄다리기, 입석줄감기, 당산제 및 풍물한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보름에 행하여지는 입석줄다리기는 뗏목으로 만든 굵은 동아줄을 마을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두 편으로 나뉘어서 줄다리를 하는데 여자팀이 이기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어 매년 여자팀이 승리를 거둔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입석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입석 줄다리기가 행사가 후세에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석마을에 위치한 선돌(立石)은 삼국시대 벽골제를 쌓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이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할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병주를 선택했습니다. 한마대 만찬주

부안 강산 병주
Premium Och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르너/12% |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375ml 5ea/13% | GIFT SET 6: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르너 |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